

중앙-서석초, 상무-치평중 통합 검토

광주시교육청 '학생수 급감 TF 운영 보고서' 보니
통폐합 통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동·남구 학급 감축 필요
중앙초 교육역사박물관 검토... 서진여고 특성화고 전환 유도
김옥자 시의원 "대책 마련 공감하나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학령 인구 감소 대책'에는 학생 수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 학생 수 급감 및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비롯,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춘 정책 추진 방향을 세우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광주시교육청 판단이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1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고교 학생수 급감에 따른 테스크포스 운영 결과보고서'는 ▲학급당 학생 수 연차적 감축 추진 ▲초·중학교 통폐합 ▲원거리 통학해소 방안 ▲직업교육특성화고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22만7631명(2016년)이던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학생 수가 오는 2022년이면 19만4023명으로 14.8% 줄어들 것에 대비, OECD 수준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초등학교의 경우 23.1명(2016년)인 학급 당 학생 수를 ▲21.9명(2020년) ▲21.2명(2025년) ▲21.1명(2030년) 등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중학교는 28.9명(2016년) 수준에서 23명(2030년)으로 감축키로 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계고의 경우 34.7명(2016년)인 학급 당 학생 수를 올해 32.4명으로 줄인 뒤 28.4명(2018년) →27.3명

(2020년) →24명(2022년) 등 연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는 올해 28명 수준인 학급 당 학생 수를 내년에 26명까지 낮추고 2020년에 일반고와 동일하게 24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초·중학교 통폐합=광주교육청 테스크포스는 학령 인구 감소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생 이동, 소규모 학교 급증으로 인한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통·폐합을 통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광주중앙초를 서석초에 통합(2018년)하고 광주 북구 삼정초를 울곡초, 두암초에 통합하는 방안(2018년)과 상무·치평중을 치평중으로(2019년), 천곡·첨단중을 첨단중으로 통합하는 구상(2018년)도 제출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모듬학습이나 음악·체육활동 등 여러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사회적·협동식 등 인성교육이 적정 규모 학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여기에 광일고와 임곡중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통합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육부 지원금으로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투입하는 구상도 담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 초등학교 23.1명(2016년)→21.9명(2020년)
- 중학교 28.9명(2016년)→24.9명(2020년)
- 일반계고 34.7명(2016년)→24명(2022년)
- 특성화고 30~32명(2016년)→24명(2020년)

초·중학교 통폐합 검토

- 중앙초·서석초→서석초(2018년)
- 삼정초→울곡·두암초로(2018년)
- 상무·치평중→치평중(2019년)
- 천곡·첨단중→첨단중(2018년)

고교 신설 및 전환 계획

- 광산구에 여고 신설 (2019년)
- 풍암고, 여고 전환 추진(2018년)

◇광산구에 여고 신설, 풍암고를 여고로 전환=교육청 테스크포스는 자치구별 인구수 대비 학교수, 학생 수 불균형으로 비롯됐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교육청은 동·남구의 경우 학생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학급을 감축할 필요가 있는 반면, 광산구와 서구 지역에서는 매년 일반계고 지원자가 타 자치구 고교로 배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광산구 천곡중 폐교 부지를 활용,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 24학급 규모의 여고 신설 방안을 김옥자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또 남녀공학인 서구지역 풍암고를 내년 3월부터 여고로 전환해 서구지역 원거리 통학 여고생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면서 공립고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도 담았다.

광주교육청은 올 해 고교 신입생 수가 줄면서 전년도에 견줘 12학급을 줄인 바 있다.

◇송의고·서진여고 보통과 없애는 방안 검토=서진여고는 지난해 정원(495명)의 57%만 채웠다. 올해는 학생 수 감소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서진여고 보통과를 폐교하는 등 종합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설립자인 이종하(79)씨의 반대로 개편 등이 사실상 어렵다는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송의고도 학생 수 감소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전년도보다 학급 수(보통과)를 3학급 줄인데 이어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이와 통·폐합 대상인 삼정초에는 직업교육특성화고나 대안교육 특성화중 신설을, 상무중 부지에는 특수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고를 검토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광주중앙초는 광주교육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이와관련,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학교 통·폐합, 통합학교 문제의 경우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총장 공백 사태 조만간 마무리

신임 총장 임용 제청안 국무회의 심의 통과

전남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전남대 신임 총장 임용 제청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은 학교가 추천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정한 뒤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대는 지난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열고 새 총장 임용 후보자로 정병석·정성창 교수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병석 교수(59·법학전문대학원)는 1287점, 정성창 교수(60·경영대)는 1238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 후보자 등 누구를 신임 총장으로 제청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전남대는 당초 지방분권(前)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새 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윤복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국민의례 규정 개정 요청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다'로 바뀌어

광주시는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자치부 '국민의례 규정'과 관련해 개정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공문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관련 규정을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행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세월호나 5·18 희생자에 대해 묵념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유정현 시장도 국민의례 규정 개정 대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있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반발했다.

광주시는 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각종 행사에서 오일 영령들에 대한 넋을 기릴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문서 변조 입찰 방해

보성군 고위 간부 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입찰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공문서변조, 입찰방해 등)로 보성군청 고위 간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께 보성군이 발주한 빗축제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등을 특정업자에게 유리하게 고치고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A씨와 같은 혐의로 보성군청 사무관 B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달 5일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광주 북구 특산물 지산딸기 출하요~

광주 북구의 대표 지역 특산물 '지산딸기' 출하가 본격 시작됐다. 10일 북구 건국동 지산딸기재배하우스에서 이석철(51) 지산딸기작목반총무와 김진숙(44) 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지산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일반 딸기보다 당도가 높아 인기가 좋은 지산딸기는 2kg 한박스에 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2017. 2. 8(수) 오전 10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행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서로 36